

449장 예수 따라가며

- 1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 2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 3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 4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 5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 후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1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 2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 3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네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 4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 후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 담당

9/1(화)	9/2(수)	9/3(목)	9/4(금)	9/5(토)	9/7(월)
이태호 안수집사	정호성2 안수집사	김영민3 재적안수집사	강성균 안수집사	전부열 안수집사	이승균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 롬12:11)

2026년 9월 3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49장 다 같 이
기 도 김영민3 재적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사무엘하 4장 8~9절 인 도 자
찬 양 내 진정 사모하는 새벽찬양대
설 교 『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 앞에 』 최유진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61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4:8~9>

- 8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
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 9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9월 3일(목)

하나님, 내게 유리한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길이 빨리 열린다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모를 작은 타협 앞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게 하소서. 욕심을 기회라 부르지 않게 하시며, 내 계산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택하고 늦어지더라도 주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래된 역사 위에, 새로운 길로 먼저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복음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오래 품고 기다리는 일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140년을 향해 가는 헌당의 시간에도 교회의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하시고,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십자가 가까이에서 교회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대화가 살아나게 하시며, 부모의 말보다 삶을 통하여 기도와 감사와 섬김을 배우게 하소서. 교회가 다음세대에게 믿음의 어른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가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와 홀로 남은 이, 일터를 잃고 내일을 염려하는 이,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을 붙드시며, 전쟁과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피할 곳과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먼 곳의 아픔을 소식으로만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며 그의 눈물과 짐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교회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 놓아 복음이 말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온기로 전해지게 하시며, 세상이 가장 아파하는 자리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2026년 새문안교회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및 선교 일정 >

부서		날짜
두나미스 여름선교	NK	한꿈학교사역 : 9/4(금)
국내선교	청년2부 부여지역	10월 중